

거리두기 풀리자...여수 낭만포차 매출 68% 늘었다

7기 낭만포차 내년 2월까지 운영 상인 18명 3월 매출 4억 9200만원 시, 친절 교육·보건 위생 점검 관리

올해 7번째를 맞은 '여수 낭만포차'가 코로나19 회복세에 힘입어 첫 달 매출이 1년 전보다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7기 여수밤바다 낭만포차'에 참가하는 상인 18명의 지난 3월 매출은 4억 92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2억9300만원)보다 68% 증가했다.

여수밤바다 낭만포차는 중화동 거북선대교 하부공간에서 운영되고 있다. 낭만포차는 여수해상 케이블카와 거북선대교 등의 야간 불빛을 즐길 수 있어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6년 개장해 올해 7기를 맞았으며, 올해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운영한다.

여수밤바다 낭만포차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에 우선 선발 기회를 주고 있다. 여수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 선발 대상이다. 여수시는 지난 2월 서류 심사에 합격한 54명 가운데 음식 품평회를 거쳐 시민 5명, 청



여수시 중화동 '7기 여수밤바다 낭만포차'를 찾은 관광객과 시민들로 상점이 붐비고 있다. 청년과 인근 주민 등 18명의 상인은 지난달부터 1년간 낭만포차를 운영한다. <여수시 제공>

년총 7명, 차상위계층 등 3명, 인근 지역주민 3명으로 최종 18명을 선발했다.

선발된 상인들은 음식 품평회에서 전국 식품·조리 관련 학과 대학교수 10명으로부터 요리과정과

요리의 맛, 창의성, 대중성 등 7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은 뒤 높은 점수를 받았다.

7기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운영자들은 4인 기준 4만원 이하 가격으로 각자 마련한 대표 음식을 선

보이고 있다.

대표 음식으로는 '여수답은 편백찜' '여수 꽃게 아란' '백리섬섬 서대회무침' '용궁해물탕' '돌풍꽃서대회' '돌문어삼합' '갯꼬막탕수' '새우뚝뚝 맨보사 누룽지탕' '섬섬돌계튀김' '꽃게탕' '여수 섬섬해산탕' '코코넛곰탕생우' '서대문어보쌈' '섬계탕' '피쉬앤칩스' 등이 있다.

여수시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친절을 제공하기 위해 최근 7기 낭만포차 운영자와 종사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친절 함양교육'을 벌이기도 했다. 이날 이다혜 ㈜섬섬돌글로벌 대표가 '글로벌 해양관광 서비스'라는 주제로 친절 교육을 했다. 여수시는 낭만포차를 찾아 수시로 보건·위생 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다.

여수밤바다 낭만포차 연간 매출액은 지난 2021년 66억3100만원, 지난해 75억5700만원 등으로 늘고 추세다.

김숙 여수시 도시재생과 주무관은 "최근 여수를 찾는 방문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점차 회복됨에 따라 포차의 위생, 친절 등에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기적절한 교육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여 여수시 대표 관광콘텐츠로서 명성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순천시 청렴 TF팀 가동...청렴도 높이기 총력

부서장·팀장 참여 반부패 시책 논의

순천시가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청렴 TF팀을 가동한다.

청렴 TF팀은 노관규 순천시장을 단장으로 11개 부서장과 팀장 30명이 참여해 ▲부패취약분야 분석 ▲부패취약분야 개선방안 도출 ▲부서별 맞춤형 청렴 시책 추진 등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비 청렴도 향상 대책을 논의했다.

청렴TF팀은 앞으로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청렴 시책 추진 및 실효성 점검으로 부패취약분야 개선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올해 ▲공직자 부패와 비리신고 감사실 직통 채널 청순만신고센터(청렴한 순천만들기) 개설 운영 ▲매주 청렴방송 추진 ▲청렴서한문 및 청렴문자 발송 ▲청렴 슬로건 선정 ▲청렴 해피콜 등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했다.

감찰 예방과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청렴 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부패취약분야 감찰과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홍보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순천시로 거듭나기 위해 청렴 시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보성녹차가 9년 연속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손연지(왼쪽부터) 차산업팀장, 김규용 보성 부군수, 김철우 보성군수, 노정이 차원에유통과 과장, 차산업팀 정운을 주무관.

보성녹차 대한민국 명가·명품 9년 연속 대상

보성녹차가 2023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지역 브랜드 부문에서 9년 연속 대상을 수상했다.

보성군은 최근 한국소비자협회 주관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 시상식에서 보성녹차가 지역 브랜드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대한민국 명가·명품 대상은 한국을 대표하고 시장을 선도하며 명성을 쌓은 제품에 대해 브랜드별 전략·체계·관리에 관한 전문가 경영 성과 평가와 소비자 브랜드 인지도 조사 등을 통해 선정한다.

보성녹차는 2002년 농산물분야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돼 차의 역사성과 품질 우수성을 공인 받았다.

보성군은 2009년부터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미국(USDA)·유럽(EU)·

일본(JAS) 등지의 국제 유기인증 획득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녹차와 연계한 기업유치·주민소득 증대·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운영성과를 인정받아 2012년·2014년·2019년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받았다.

보성군 관계자는 "명품 보성녹차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명가·명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연간 100억원 수출을 목표로 해외시장 경쟁력을 갖추 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오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2023 보성세계차엑스포를 개최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군, 쌀 가공산업 활성화로 소비 촉진

전남도 '유통 플랫폼 구축' 선정

곡성군이 쌀 가공업 관련 지원사업 선정을 계기로 쌀 소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곡성군은 전남도 주관 '2023년 쌀 가공업 생산·유통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쌀 가공품 개발 및 상품화를 통해 쌀 가공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곡성군은 '섬진강쌀로만이야기', '쌀맛나게' 등 컨소시엄 2곳이 뽑혔다.

섬진강쌀로만이야기는 농협회사법인 조장·미

실란이 함께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유기농 쌀을 활용한 쌀점 쌀음료 등 간편식과 디저트를 개발한다.

쌀맛나게 컨소시엄은 농협회사법인 시향·영농조합법인 그린농산·곡성농민공방협동조합 등이 함께 구성했다.

가루 쌀을 이용한 로컬 쌀막걸리, 증류주 등 지역 특산주, 체험·관광 상품 등을 개발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쌀 가공산업이 쌀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해당 사업이 쌀 소비 촉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it@

순천만정원박람회 기념

오늘 순천국제에코포럼

2023순천국제정원박람회 제정원박람회 개최를 기념한 '순천 국제에코포럼'이 24일 열린다.

행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진행된다.

주제는 '지구 의 꿈, 지구의 정원'이다. 시민과 지방자치단체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부 행사에서는 데니스 오하라 토론토대학교 생태학교수가 '지구의 꿈'이라는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과 한운정 한신대학교 생태대명원 대표의 토론이 진행된다.

2부는 '성경적 인간관-염소, 정원사, 보호자'를 주제로 아사라 국제본부 감독인 데이브 부크리스가 발표한다. 이소명 토론토대학교 생태영성 박사 와 파니 세계기독교학술회연맹 아시아태평양 총무가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한다.

포럼 참가 등록은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시 'u-수호천사 서비스'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 선정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혁신 최초·최고사례' 공모에서 광양시의 'u-수호천사 서비스'가 사회적 약자 위치찾기 분야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광양시에 따르면 전국에서 8개 기관이 최종 선정된 이번 정부혁신 최초사례에 광양시의 'u-수호천사 서비스'가 포함됐다.

2007년 12월부터 실시한 광양시 'u-수호천사 서비스'는 300여명의 정신지체·발달장애인과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단말기를 제공하고 주요 활동 지역(안심존) 이탈 시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이동통신사와 연계해 대상자가 실종됐거나 긴급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관할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긴급 구조 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u-수호천사 서비스는 사회 안전망 확충과 위치 기반서비스 확산에 기여했으며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이번에 정부혁신 최초·최고로 선정된 사례들은 정부혁신 누리집에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홍보영상과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혁신성과가 널리 전파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시민들이 더욱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5090010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